

“소꿉놀이하듯 즐겼다”... “타인은 고마운 존재”

〈임시완〉

〈박종환〉

임시완은 연신 아쉬움을 표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느냐”며 “엊그제 촬영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버렸다”고 했다. 드라마가 10부작이어서 체감의 정도는 더 컸다. “연기 갈증이 덜 해소”됐다며 “한동안 쉬지 않고 일할 힘이 많다”고 자신했다.

“노는 느낌으로 연기했다. 이창희 감독이 만든 놀이터에서 우리끼리 소꿉놀이를 하듯 연기하는 소재를 요리조리 고민하며 했다. 어쩔 이렇게 놀 줄 아는 연기자들만 모였는지. 하하. 2년 전 즐기면서 연기하자고 먹었던 마음이 이번 드라마를 통해 더욱 강해졌다.”

3월 군 제대 이후 복귀작이어서 임시완의 의욕은 더욱 불타올랐다. 군 복무 중 출연을 결심할 만큼 애착이 더했다. 그는 “원작 웹툰에 대해 악히 들어 친숙함과 반가움이 컸다”며 “장르를 떠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2~3%대 저조한 시청률이었지만 “선택에 대해 후회는 없다”며 만족감을 드러낸 그는 “시청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르임에도 높은 화제성의 반응을 접하고,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대해 빨리 익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임시완은 “짧든 길든 휴식은 제 자신에게 큰 의미를 줬다”고 돌이켰다.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어 변화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은 지옥이다’를 촬영하며 새삼 깨달았다. 이전보다 성숙해진 ‘연기자 임시완’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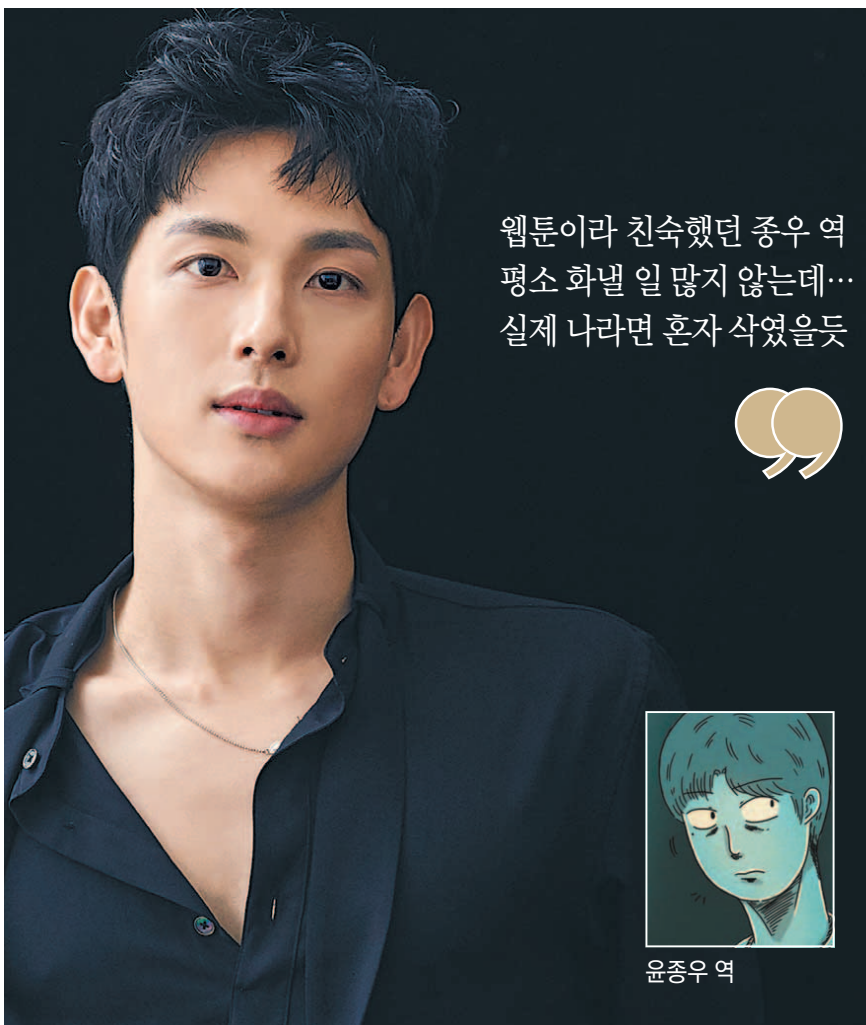
“20대에는 캐릭터가 이해되지 않으면 연출자에게 직접 얘기했다. 참 노련미 없이 직설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던 것 같다. 지금은 제 의견을 말아붙이기보다 연출자의 설명에 설득 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마냥 싸우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아예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작품은 배우가 아닌 연출자의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임시완은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는 편에 속한다. “평소 화낼 일이 많지 않는데, 일단 화가 나면 감정이 앞서서 말을 잘 못한다”며 “감정을 삭이곤 한다”고 말했다. 머리가 복잡할 때도 혼자 조용히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웬만하면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래도 여름에는 수상스프츠를 즐기며 시원하게 바람을 가른다.

최근 새로운 관심사는 영어. 할리우드 진출이라는 거대한 목표보다는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며 살아보고 싶어서”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싶다.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에서 여행 관련 앱을 통해 가고 싶은 여행지와 비행시간, 항공기 좌석 등을 체크한다. 쓸쓸하다. 여행 예능프로그램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온전한 휴식을 원한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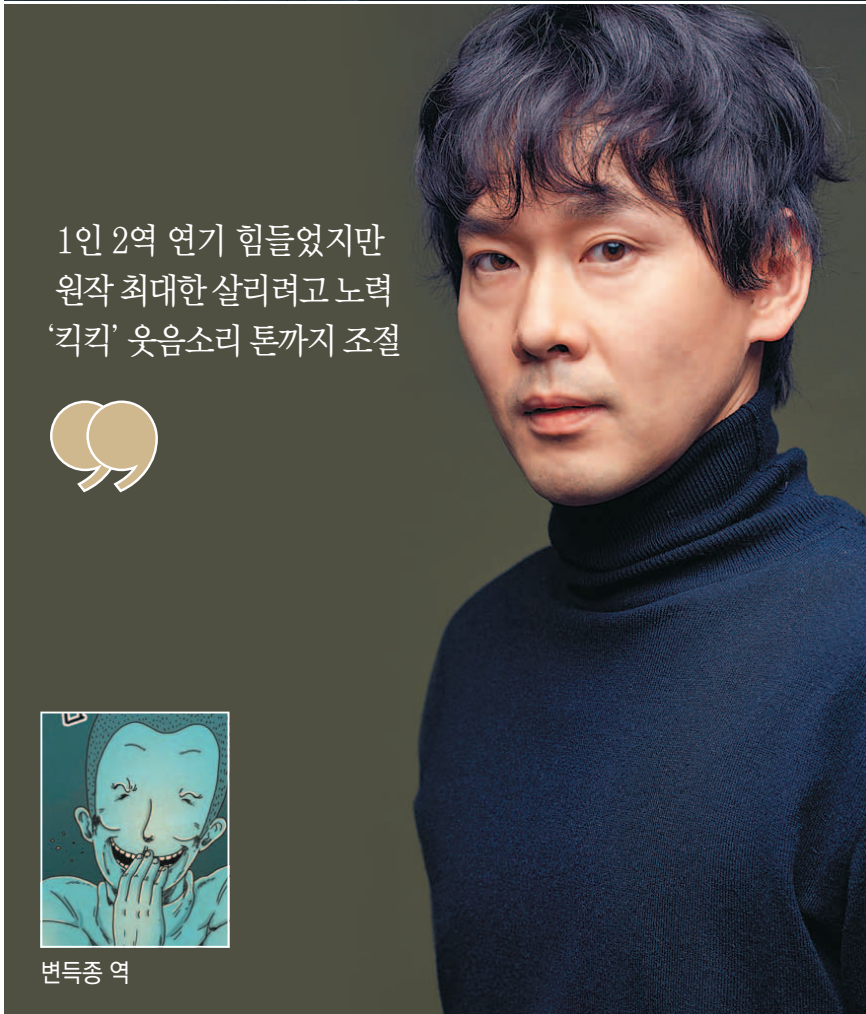
백솔미 기자



웹툰이라 친숙했던 종우 역
평소 화낼 일 많지 않는데...
실제 나라면 혼자 삭였을듯



윤종우 역



1인 2역 연기 힘들었지만
원작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
‘킁킁’ 웃음소리 톤까지 조절



변득중 역

연기자 임시완(위)과 박종환은 케이블채널 OCN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를 통해 갈등을 해소했다. 임시완은 3년 만에 연기의 맛을 느꼈고, 박종환은 처음으로 대중의 관심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플럼액터스

초가를 시청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한 연기자 임시완(31)과 박종환(37). 케이블채널 OCN ‘타인은 지옥이다’를 무대로 각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야기의 잔혹함이 지나쳐 때론 불쾌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든 모습만큼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못하게 했다. 저마다 다른 동기부여를 통해 드라마를 마무리한 뒤 2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 나타난 두 사람은 상기되어 있었다.

? 임시완

▲1988년 12월1일생 ▲2010년 그룹 제국의아이들로 데뷔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시작으로 연기 병행 ▲2014년 MBC ‘트라이앵글’·연기대상 신인상 ▲2014년 드라마 ‘미생’·코리아드라마 어워즈 심사위원상 ▲2017년 ‘왕은 사랑한다’ ▲영화 ‘변호인’ ‘오빠생각’ ‘원라인’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등

? 박종환

▲1982년 9월7일생 ▲2009년 영화 ‘보통소년’으로 첫 주연 ▲‘나의 싸움’ ‘깁스를 한 남자’ ‘임투기’ ‘베테랑’ ‘검사와전’ ‘양치기들’ ‘특별시민’ ‘생일’ 등 ▲드라마 ‘더 러버’ ‘프로듀사’ 단막극 ‘작통패밀리’ 등 ▲영화 ‘파파레’ 개봉 예정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태양광 발전소 선착순 분양!

- ★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 ★ 금융이자 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지역

-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영주 등
-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 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 상담전화 : 0505-337-3500
0505-362-9000
- 대표전화 : 1522-3097
- 팩스 : 0505-3131-3500
- 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중흥동 655-29)



남녀선택 ● 탁송환영

독립대리운전

지역과 소속은 달라도
기사님들 24시 편의제공
장거리 / 오지 / 회원제

전국 가맹점 모집

1800-3390
010-4299-2121

좋은친구들 / 능력개발원

오더체크 ● 대행전문

“매월 900만원 수익”

디젤 발전사업 24시간 전기생산
태양광 보다 3배 더수익 시설비 반값 땅값 10%
“민원, 개발” 문제 없음. 땅, 시설자금 90%지원
(주)미광 ☎010-9525-9192 <https://blog.naver.com/sun999kw>

무지개 싱글모임

☆비즈니스 친교도 하고 짝꿍도 찾고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구용
· 일시: 10월 5일(토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문경새재약물 생삼겹살”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4-27(주차가능)
(7호선 강남구청역 3번출구 우회전 첫번째 골목 좌회전 200미터 전방)
· 회비: 남성 3만 / 여성 1만 5천(식사 + 맥주 + 노래방)
문의 갈충로회장 010-9298-3771

신용불량자 요금연체자

갤럭시 S10 5G / 아이폰XS MAX 할부개통 가능

휴대폰 현금

당장 쓰실분
현금 100~390만원 즉시지급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백화점 상품권증정

010-2439-2555 전국 출장 가능 (제주도 가능) (주)웹메론통신